

| | | | | | |
|--|--------------|--|-----------|--|-----------|
|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 | 보 도 자 료 | |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 |
| 배포일자 | | 2024년 5월 16일(목) | | 총 5매 | |
| 담당 부서 | 디아스포라 유산과 | 담 당 자 | • 다문화가족팀장 | 김영분 | ☎440-2901 |
| | 공보담당관실 | | • 담당자 | 신나리 | ☎440-2903 |
| | | | • 담당자 | 김미현 | ☎440-3075 |
| 사진(이미지) |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디아스포라 도시 인천, 결혼이민자 자립 역량 강화에도 앞장
- 을부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지원 사업 추진 -
- 언어·소양 교육 등 기초 교육부터 특화 직업훈련,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 지원 -

디아스포라의 도시 인천시가 결혼이민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인천광역시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 군·구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특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 추진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장기화에 따른 취업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됐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10년 이상 장기 정착 거주 비율은 2018년 60.6%에서 20

21년 68.5%로 증가했으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은퇴기에 따른 소득보장과 노후보장, 학령기 자녀 양육을 위한 취업 수요도 크게 늘었다.

교육과정은 가족센터와 직업교육 훈련기관이 함께 기획·운영하며 한국어와 취업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등의 기초 교육부터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인천시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수행 기간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6개 군·구로 총 94명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온라인 스토어 ▲피부미용교육 ▲온라인 마케팅 크리에이터 ▲이중언어강사 취업 준비 ▲영상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 등을 개설했다.

결혼이민자 특화 직업훈련 과정은 ▲컴퓨터교육 ▲취업준비 교육 ▲한국어 토픽 등 각 구에서 개설한 사전 기초 교육을 수료해야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가 지급된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도시이자 이주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가 깃든 인천에서는 18일부터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75편의 영화 상영을 비롯해 체험 부스, 폴리마켓 등 이주문화를 경험할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인천시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 사업, 2018년부터 선도적 추진

- 올해 4억 3,000여 만 원 예산 투입 ... 취업역량 강화 교육 공백 없이 추진

인천시는 올해 4억 3,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다문화가족 일자리를 지원한 것은 2018년부터다.

시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와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왔으며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해왔다.

2018년 11월 거점센터 일자리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전문인력 배치를 7개 센터로 확대하고 다문화 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일자리 전담 인력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거점 및 8개 센터로 모두 확대됐다.

올해는 거점센터와 8개 군·구 가족센터에 일자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결혼이민자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거점 및 중구·동구·남동구 등 3개 군·구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특히 취업역량 강화 교육은 여가부의 결혼이민자 직업 훈련지원 사업을 추진 6개 센터* 이외의 지역(중구, 동구)에서 진행해 인천시 전역에 공백 없이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6개 군·구 가족센터 :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거점센터를 비롯해 중구, 동구, 남동구에서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 ▲사법·상담 통·번역 양성 과정 ▲홈마스터 과정 ▲아동 놀이 지도사 자격증 과정 ▲의료전문 통·번역사 양성 과정 등 12개 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특히 다문화가족 의료돌봄 서비스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으로 전문 의료 통역 및 심리정서 지원 역량을 가진 결혼이민자가 모국의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윤현모 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인천은 화교와 고려인,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등 다양한 이주민을 품고 있는 도시” 라면서 “이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이며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글로벌 국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고 말했다.



<2023년 진행한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

<붙임> 인천시 다문화가족 통계자료

붙임

인천시 다문화가족 통계자료

○ 전국 대비 현황

[행정안전부 '22. 11.1. 기준, 단위 : 명]

| 구분 | 합계 | 한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자녀 (귀화, 외국국적자, 국내출생) | 기타동거인 (내국인, 외국인) |
|----|--------|---------|-------------|-------------------------|---------------------|
| 인천 | 80,587 | 11,566 | 29,888 | 19,413 | 19,720 |

※ 전국3위 : 경기(343,605명/29.9%), 서울(190,458명/16.6%), **인천(80,587명/7.0%)**

※ 집계시 집단거주시설 인원은 불포함되어 외국인주민 통계와 다소 차이가 발생함

○ 연도별 현황

[행정안전부 '22. 11.1. 기준, 단위 : 명]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인원 | 70,222 | 73,298 | 76,765 | 80,587 |
| 증가율 | 7.8% | 4.4% | 4.7% | 5.0% |

○ 군·구별

(단위 : 명, 행정안전부 '22. 11. 1. 기준)

| 구분 | 계 | 강화군 | 옹진군 | 종구 | 동구 | 마추출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
| 거주 비율 | 100% | 2% | 0% | 6% | 2% | 15% | 9% | 17% | 23% | 8% | 19% |
| 전체 다문화가구원 수 | 80,587 | 1,413 | 284 | 4,895 | 1,562 | 11,728 | 7,463 | 13,372 | 18,209 | 6,475 | 15,186 |
| 가구수 | 28,657 | 418 | 92 | 1,784 | 522 | 4,237 | 2,534 | 4,781 | 6,911 | 2,191 | 5,187 |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 | 29,888 | 352 | 79 | 1,827 | 492 | 4,394 | 2,408 | 4,788 | 8,247 | 2,082 | 5,219 |
| 자녀 수 | 19,413 | 406 | 77 | 1,114 | 411 | 2,701 | 2,001 | 3,263 | 3,820 | 1,640 | 3,980 |